

## □ 해외 신간소개

2009. 09. 02. (수) | 편집진

### Why I Am Not a Scientist: Anthropology and Modern Knowledge

Jonathan Marks | 2009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경쾌하고 도발적인 이 책은 철학, 역사, 사회학, 그리고 자전적 구술사를 통합하는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논의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분야에 인류학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Jonathan Marks는 과학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뒤집어 과학연구 문헌을 탐구하고, 생물학적 인류학과 생활과학사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학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 그리고 세계에 대한 사실을 확립하는 수단. 둘째, 사실 그 자체. 셋째, 권위있는 의견. 혹은 문화적 영향력의 소재. 저자는 이러한 과학의 세 가지 정체성이 과학분야 내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과학이 겪어온 교훈적인 성공과 실패로 과학을 이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그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는 과학혁명, 사고와 수행으로서 과학, 창조론, 과학의 거짓말, 그리고 현대 과학의 인종차별주의 등이 있다. 심도있는 통찰력과 에너지 그리고 재치를 발휘함으로써 저자는 과학의 진화, 현대문화에서 과학의 역할, 그리고 21세기 과학의 과제를 새로이 조명한다.

This lively and provocative book casts an anthropological eye on the field of science in a wide-ranging and innovative discussion that integrates philosophy, history, sociology, and auto-ethnography. Jonathan Marks examines biological anthropology, and history of the life sciences, and the literature of science studies while upending common understandings of science and culture with a mixture of anthropology, common sense, and disarming humor. Science, Marks argues, is widely accepted to be three things: a method of understanding and a means of establishing facts about the universe, the facts themselves, and a voice of authority or a locus of cultural power. This triple identity creates conflicting roles and tensions within the field of science and leads to its record of instructive successes and failures. Among the topics Marks addresses are the scientific revolution, science as thought and performance, creationism, scientific fraud, and modern scientific racism. Applying his considerable insight, energy, and wit, Marks sheds new light on the evolution of science, its role in modern culture, and its challeng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Privatizing the Public University

Christopher C. Morphew | Peter D. Eckel | 2009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공립대학의 책임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공립대학의 예산에 대한 방대한 감축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많은 대학기관들은 재정지원을 사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 중심적 정책과 행동이 일상화 되어갈 때, 일부 신중한 비평가들은 경종을 울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실리적으로 이를 환영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관점이 옳은 것일까? 공공 고등교육의 민영화는 그것의 본래 임무를 위협하는가 혹은 지지하는가? 공립대학의 민영화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자원과 서비스는 가져오겠지만, 또한 공공 고등 교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이해관계 역시 가져오지 않을까? 공립 대학은 지식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시장에서 역시 격렬히 경쟁해야 하는가? 고등교육기관이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여러 에세이를 묶은 이 책에서는 경제학자, 정책입안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조직 연구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의 관점에서 공립대학의 민영화의 영향에 대해 논

의하고, 그것이 고등교육의 미래에 가지는 함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공립 대학에게 민영화가 현실인 상황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탐구한 이 책은, 공립 대학 민영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이들에게 분명 반가운 책일 것이다.

With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facing substantial budget cuts and increased calls for accountability, more institutions now rely on private revenue streams for support. As market-driven policies and behaviors become more commonplace, some cautious critics sound the alarm, while others watching the bottomline cheer. But which perspective gets it right? Doe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higher education threaten its very mission or support it? In this collection of essays, economists, policy makers, political scientists, sociologists, and organizational researchers discuss the impact of privatization from their respective disciplinary perspectives and assess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Privatization may bring additional funds and services that are free from government regulations and oversight, but does it also allow private interests to have undue influence over public higher education? Should public universities have to compete in the economic marketplace as vigorously as they do in the marketplace of ideas? What are the implications whe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function like businesses? With privatization now a reality for most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an objective examination of the issue from these diverse academic perspectives will be welcomed by those struggling with its challenges.

#### Academic Capitalism and the New Economy: Markets, State, and Higher Education

Sheila Slaughter | Gary Rhoades | 2009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포스트 산업 경제 사회에서 대학들이 점차 기업화되어감에 따라, 공공 이익으로서 지식을 보는 관점은 이익에 중점을 두어 자본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지식을 보는 관점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등교육학자인 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학문 자본주의와 새로운 경제사회에서 미국 고등교육기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식기반경제에 참여하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대학들이 연구물과 교육서비스, 그리고 소비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고 이를 판매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책과 실행의 변화를 추적하고, 고등교육기간과 시장을 연결하는 확장된 관리능력과 새로운 조직 구조, 그리고 지식을 창조하고 보급하는 새로운 관계망과 그 순환 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Alison Hearn는 이 책에 대해서 "미국 대학의 현재 상황에 대해 밀도있고 냉철한 묘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As Colleges and universities become more entrepreneurial in a post-industrial economy, they focus on knowledge less as a public good than as a commodity to be capitalized on in profit-oriented activities. In *Academic Capitalism and the New Economy*, higher education scholars Sheila Slaughter and Gary Rhoades detail the aggressive engagement of 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d analyze the effort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develop, market, and sell research products, educational services, and consumer goods in the private marketplace. Slaughter and Rhoades track changes in policy and practice, revealing new social networks and circuits of knowledge creation and dissemination, as well as new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expanded managerial capacity to link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markets.

"Provides a densely detailed and chilling descrip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lison Hearn, *Topia: Canadi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